

안녕하세요? 끝이 보이지 않던 취업에 성공하며 제가 후배님들께 이런 글을 쓰게 되네요. 먼저 이러한 기회를 주신 윤당혁 학부장님과 박노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보내며 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우리 영남대 신소재 공학 후배님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1학년부터 4학년이 되는 겨울방학까지 줄곧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성적은 좋았지만, 그 외 어떠한 대외활동을 한 적이 없었고, 영어성적도 보통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대학 4학년 11월 외국계 기업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에서 보낸 시간 속에서 항상 모든 일에 주도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학 시절 동안 제가 느끼고 배운 점에 대해 부족하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학점관리 = 성실도? 하지만 아직도 학점은 중요하다!

대부분 학생은 학점이 성실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작용하고, 일정 수준의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아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생각은 가볍다고, 실제 많은 대기업(ex : 포스코)들은 아직도 학점으로 서류전형의 합/불을 판단하는 큰 척도로 활용하며, 학점은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학점관리에 신경 쓰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학점이 높지 않다면 그것은 면접까지도 자신의 발을 붙잡고 말 것입니다.

2) 영어에 기본이다. 자신만의 무기는 제2외국어

대부분 공대생이 그렇듯 영어는 가장 힘들고 공부하기도 싫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학원부터 문제집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코 영어를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본(700중반/토스6)만 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대부분이 영어면접을 시행합니다. 언제까지 영어가 힘들다고 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자신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제2외국어입니다. 저는 일본어를 3년간 공부했습니다. 처음은 취업을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대학원을 가고자 생각했기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2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어디서든 후배님들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대기업이 최근 늘어나는 인건비와 부족한 공장부지로 인해 중국과 동남아(낮은 인건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어, 중국어 등 많은 제2외국어를 요구하는 회사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갖춘 인재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 수만 있다면 기업에서 먼저 찾아가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3)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해라

먼저 후배님들께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설계수업에서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발표와 PPT 만들기 귀찮고 두렵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니까? 저는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프로젝트에서 팀장, 발표자, PPT 제작자를 해봐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활동이 앞으로 여러분이 하게 될 취업의 과제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수행한 프로젝트와 설계수업은 최고의 자소서 소재가 되어 면접관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면접에서 여러분께 물어보는 질문 1순위입니다. 그런데 과연 수동적으로 임하기만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막연히 "열심히 했다."/ "창의성을 키울 수 있었다."/ "~~을 배웠다." 라고 말한다면 장담합니다. 면접관은 후배님들께 관심을 끊어버리고 안 좋은 선입견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자기 어필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계수업을 현재 기준인 9학점을 넘어 11학점을 수강했습니다. 그건 즉 제가 인턴, 현장학습을 가지 않는 데 있어서 쌓을 수 있는 훌륭한 스펙이 되었고, 실제 면접에서 많은 질문의 프로젝트 수행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속에서 항상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누구나 매력적인 지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항(자기소개서, 면접)

자기소개서 : 저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영남대 어울림 사이트의 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소서는 일찍 준비할수록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상반기/하반기에 앞서 적어도 2달은 투자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원하는 기업의 기출 자소서 문제를 써나가기길 바랍니다.

면접 : 요즘은 많은 정보가 있으므로 쉽게 작년 기출 면접 문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답안을 만들어보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현재 많은 학교 공식 취업 동아리가 운영 중입니다. 면접을 봐야 들어갈 수 있어서 일찍 준비해서 동아리에 들어간다면 다양한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자신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남대 신소재 공학부 후배님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